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 병 현	2133-8345
개발정책팀장	배 성 호	2133-8346
담당자	송 지 영	2133-8348
담당자	김 진 옥	2133-8349
도시계획과장	김 종 성	2286-5551
도시계획팀장	김 기 한	2286-5552
담당자	윤 정 규	2286-5553

성동구 도시계획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서울시, 성동구·(주)삼표산업과 손잡고 시민 위한 문화·여가공간 만든다

- 31(수) 서울시, 삼표레미콘 유희부지 임시활용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6월중 구체적인 구상
- 국제설계공모 통해 첨단 글로벌 업무지구로 개발 전까지 잔디광장, 공연장, 주차장 조성 및 시용
- 시, “성수~서울숲~삼표부지까지 확장, 시민들이 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길 기대”

-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유희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여가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 서울시는 성동구 및 (주)삼표산업과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유희부지 임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31일(수) 체결했다고 밝혔다.
- 최근 성수 지역은 문화, 기술, 뷰티, 패션 관련 기업들이 집결하고 있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팝업 공간을 여는 등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명실상부 서울의 핫 플레이스로 각광 받고 있다.

- 협약에 앞서 서울시와 성동구는 문화콘텐츠 등 관계자 자문 등을 통해 성수 일대 변화와 특성,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했으며, 공연 등의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성수 일대 특성상 삼포 부지 임시 활용을 통해 시민의 여가활동 및 공간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에 시는 삼포레미콘 유희부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성수 일대 문화 트렌드를 서울숲에서 삼포부지까지 확장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를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 이번 사업은 유희부지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및 서울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문화공연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과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숲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서울숲의 매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은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모이는 글로벌 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전까지 삼포레미콘 유희부지(22,770㎡)를 시민들의 문화·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서울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중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최초 사례인 삼포부지를 글로벌 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설계 공모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달 초 지명 건축가 4명을 초청해 삼포 부지 및 서울숲·수변·성수 일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오는 9월 중 제안서를 접수해 자체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협약에 따라 (주)삼표산업은 유희부지를 개발하기 전까지 문화공연시설을 설치해 성동구에 제공, 서울시와 성동구는 원활한 시설 설치에 따른 제반 인·허가 및 제세 감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와 성동구, (주)삼표산업은 오는 6월 중 문화공연시설 조성 등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부지 평탄화 작업 등 제반 공사를 거쳐 7~8월경 시설물 설치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성동구는 “사업 착공 전까지 유희부지를 공공용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준 삼표 측의 결정에 주민을 대표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강과 중랑천이 합류하는 이 곳에 조성되는 문화공연시설은 최근 서울숲 일대에 떠오르고 있는 첨단미래산업과 문화관광산업, 이 두개의 물줄기가 만나 융·복합하게 할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하여 조성·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삼표레미콘 부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서울시 최초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사업임과 동시에 삼표부지 임시활용에 있어서도 서울시-성동구-삼표산업이 논의·협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최근 성수가 다양한 문화의 융·복합 문화공간, 새로운 문화트렌드가 탄생하는 지역으로 국내·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삼표부지를 활용한 공간이 성수 일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대상지 현황

○ 대상지 현황 : 성동구 성수동1가 683 일대(부지면적 : 22,770㎡)



위치도



현황도